

## &lt; 붙임 &gt;

**1 입주자모집공고 실태조사 결과**

- 조사대상 : 2021년 모집공고한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100개
- 조사방법 : 청약홈([www.applyhome.co.kr](http://www.applyhome.co.kr)) 청약캘린더에 게시된 입주자모집공고 온라인 조사
- 조사기간 : 2022.2.3. ~ 6.30.
- 조사내용 :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, 녹색건축 예비인증서,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,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표시 실태

**□ 인증서 표시를 누락**

- (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) 총 100개의 입주자모집공고 중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의 표시를 누락한 사례가 23개(23.0%)로 조사되었음.
- ※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사업자는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공급할 때 입주자가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알 수 있도록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받아 입주자모집공고에 표시해야 함.
- (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) 총 100개의 입주자모집공고 중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의 표시를 누락한 사례가 2개(2.0%)로 조사되었음.
- ※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는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이 포함되어야 함.

**□ 인증서를 작게 표시**

- (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)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표시한 77개 입주자모집공고 중 44개(57.1%)가 인증서를 한 면 크기의 약 1/5보다 작게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가 내용을 알아보기 어려움.
- ※ 관련 규정에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입주자모집공고에 알아보기 쉬운 글자 크기로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, 구체적인 크기에 대한 규정은 없음.
- (녹색건축 예비인증서) 녹색건축 예비인증서를 표시한 81개 입주자모집공고 중 45개(55.6%)가 인증서를 입주자모집공고 한 면 크기의 약 1/5보다 작게 표시하고 있어, 예비인증서 하단에 표시된 주의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우며, 별도 공간에도 주의사항을 기재하고 있지 않았음.
- (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)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를 표시한 68개 입주자모집공고 중 41개(60.3%)가 인증서를 입주자모집공고 한 면 크기의 약 1/5보다 작게 표시하고 있어, 예비인증서에 표시된 주의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우며, 별도 공간에도 주의사항을 기재하고 있지 않았음.

## □ 인증 내용을 제각각 다른 방법으로 표시

- (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)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표시한 98개 입주자모집 공고는 제각각 다른 방법으로 이를 표시하고 있었으며, 특히 그 중 3개는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관련 규정을 준수했다는 표시만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어,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알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됨.
- 아래 A, B, C, D 아파트는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각각 다른 방법으로 표시하여 성능을 비교하기 어려웠으며, 특히 A 아파트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음.

### [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표시 사례 ]

본 규격은 「에너지절약형 건축물」, 「에너지절약형 건축물」

## □ 입주자모집공고에 아파트 성능 인증서가 표시된 위치

- ① (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)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표시한 입주자모집공고 77개는 전체 쪽(page)수가 평균 51.2쪽이었으며,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가 표시된 위치는 평균 46.7쪽으로 약 91.2% 위치에 있었음.
  - ② (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)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표시(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3개 입주자모집공고 포함)한 입주자모집공고 98개는 전체 쪽수가 평균 50.7쪽이었으며,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이 표시된 위치는 평균 46.2쪽으로 약 91.1% 위치에 있었음.
  - ③ (녹색건축 예비인증서) 녹색건축 예비인증서를 표시한 입주자모집공고 81개는 전체 쪽수가 평균 50.9쪽이었으며, 녹색건축 예비인증서가 표시된 위치는 평균 46.6쪽으로 약 91.6% 위치에 있었음.
  - ④ (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)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를 표시한 입주자모집공고 68개는 전체 쪽수가 평균 50.1쪽이었으며, 예비인증서가 표시된 위치는 평균 45.9쪽으로 약 91.6% 위치에 있었음.
- ※ 아파트 성능 인증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의 끝부분에 있는 경우가 많아, 소비자들이 인증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었음.

공정거래위원회

C65A9D3390504FD6982CA67D847CDD15